

## 국제리뷰

- 일본에서의 '82년생 김지영' : 일본 여성인 '내'가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나서  
오노 세라(大野 聖良) |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와 국제개발에서의 합의  
김선영 | KOICA 사업전략기획실 젠더전문관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일본에서의 ‘82년생 김지영’ : 일본 여성인 ‘내’가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나서

오노 세라(大野 聖良)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 서론

“82년생 김지영”은 2018년 12월 도서출판 “지쿠마서방(筑摩書房)”에서 번역 간행되었으며, 일본 주요 서점에서 문예 부문 판매 랭킹 1위를 일제히 획득, 발행 2일째에는 중판, 4일째에는 3판, 4일째에는 4판 중판 발행이 결정되었고, 2019년 5월까지 누적 발행량은 13만부에 이른다.

책의 출간 직후부터, 나의 페미니스트 친구와 선배들은 한국 여성의 고단한 삶을 생생하게 묘사한 한국 “페미니스트” 소설을 읽고 있다면서 SNS를 통해 이 책에 대해 포스팅하기 시작했다. 출간 후 1, 2개월이 지나면서, 인터넷에서 “82년생 김지영”에 관한 서평이나 감상 등이 넘치기 시작하더니 매일 구독 중이던 신문, 정보사이트, 애청 라디오 프로그램, 그리고 가끔씩은 미용실에서 대기하면서 보게 되는 여성 잡지나 직장 내 책꽂이, 그리고 전차 내 동영상 광고에 이르기까지 “82년생 김지영”이란 책을 접하게 되었다. 평상시 그다지 문예작품을 읽지 않는 나였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어째서 이 책이 일본 페미니스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필독서가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 책을 읽을 마음이 없었다. 유행하고 있는 책 따위는 읽고 싶지 않다는 단순한 심술도 있었지만 책을 보기 전부터 아마도 읽고 나면 허무감만 이 남을 게 틀림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은 친구로부터 “한국의 심각한 여성차별에 관한 내용으로 읽고나도 어찌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소감을 들으니

\* 일본입국관리정책의 성별분석 및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일본 시민운동의 역사 연구, 인신매매 문제나 필리핀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을 지원하는 NGO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음. 주요 연구는 “현대 일본에서의 인신매매 문제 - 성적 착취를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관련 웹사이트 제작편집위원회 역음 “Fight for Justice 소책자 2 성 노예란 무엇인가 - 심포지엄 전체기록” 오차노미즈서방(御茶ノ水書房), pp.81-97, 2015(공저) 등.

더욱 읽기가 망설여졌었다.

최근 1년간 내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는 “성차별”보다는 “성별에 따른 비리와 부조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다. 예를 들면, 재무성 차관, 문예평론가, 저널리스트, 초중고 교원에 의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취직활동 중 성희롱<sup>1)</sup>, 동경대 의대 등에서의 입시 점수 차별, “(성관계) 가지기 쉬운 여대 랭킹”과 같은 주간지 기사<sup>2)</sup>, 성폭력 무죄 판결 및 피해자 힐난하기와 같은 사법처리, 여성의원 또는 여성 사회활동가에게 속옷을 착불로 보내기 등의 피해이다<sup>3)</sup>.

비록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지만 이 사건들이 대중매체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다행일지도 모른다. 애써 외면하고 싶은 일본사회의 성별을 둘러싼 차별 및 폭력 등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한국이라는 다른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허구적 이야기를 읽을 만한 여유는 전혀 없었다. 언젠가는 읽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도 그리고 현실세계 곳곳에서 “82년생 김지영”의 표지를 마주치게 되면서, 이는 아마도 지금 읽는 게 괜찮겠다는 일종의 사인이라고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다. 내가 시간강사로 강의하는 성별론 수강생 몇 명이 수업 후 이 책을 읽고 있다고 일부러 내게 알려준 점, 이 책의 일본어판 표지의 여성이 내가 좋아하는 르네 마그리트를 연상시킨다는 점, 그리고 내가 주인공 김지영과 동세대인 81년생의 기혼, 미취학 여자아이의 어머니라는 점 등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이 글에서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에 관한 일본의 대중매체 및 일본 사회 전반적인 반응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일본 여성인 “81년 생, 오노 세라(大野聖良)”의 시선에서 이 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일본 사회에서의 “82년생, 김지영”

앞에서 말했듯이 이 책은 일본에서 발행되자마자 주요 신문, 잡지, 웹 뉴스 사이트, 라디오 등 온갖 매체에서 거론되었다. 출판사인 지쿠마서방에서 개설한 특별 웹사이트인 “82년

1) 취직활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측 면접관(주로 남성 사원)에 의한 성희롱.

2) 2019년 12월에 남성주간지에서 성관계 하기 쉬운 여대생이 많은 대학 및 여성들이 특징을 소개한 특집 기사를 게재한 사건. 여성에 대한 멸시라는 비판이 쇄도하여 여대생들이 기사철회와 사죄를 요구하는 서명활동을 시작, 4만 명의 서명이 모아졌고 기사에 게재된 대학당국도 해당 출판사에 항의했다. 후에 서명활동을 시작한 여성들은 해당 출판사의 편집부와 협의해 사과문 및 개선요구 사항을 해당 잡지의 지면에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3)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대중매체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변호사, 정치인, 작가, 시민활동가 등에게 속옷이나 화장품, 건강식품 등 주문하지도 않은 통신판매 상품이 착불로 배달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2019년 2월에 7명의 피해 여성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생 김지영”에 게시된 언론 보도 목록을 보면 간행직후부터 4월 하순까지 연일, 도처에서 화제가 된 것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책 제목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책에 관한 서평이나 감상을 적은 개인 사이트의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며, 크고 작은 독서 모임들이 일본 각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런 유행은 판매 및 홍보 전략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예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문제, 패션,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한 장르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에 있는 매체에서도 거론되었다. 2월 중순 저자 조남주씨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는, 동경 신주쿠에 위치한 일본 최대 서점인 기노쿠니야 서점(紀伊国屋書店)에서, 기자회견과 아쿠타가와 상(芥川賞) 수상자인 가와카미 미에코(川上未映子)씨와의 대담 이벤트도 열렸다. 이벤트를 위해 마련된 400석의 유료좌석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참석자 대부분은 20, 30대 여성이었다고 한다.

출간되기 전에는 일본에서 인기 있는 한국 연예인들이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라는 등의 예능 뉴스에서 이 책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일본에서 출간된 후에는 이 책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 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예를 들어, 이 책이 한국에서 100만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사회적 배경이나 한국에서의 페미니스트 운동, 활발한 시민운동, 이 책이 한국의 미투(MeToo) 운동을 주도하고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점, “82년생 김지영 법안”이라는 고용 보육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던 점, 한국 여성들에게는 큰 공감대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남성들에게는 강한 비판을 불러 일으켜 돌고 돌아 Amazon 일본어 번역판의 댓글란에는 한국 남성들과 여성들간에 이 책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이 소개되었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의 소개나 문학적 의의를 찾는데 그치지 않고 이 책을 통해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일본사회를 성찰하고 그 사회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을 되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기사가 적지 않았던 점이다.

키쿠마서방의 책 관련 특설 사이트에는 1954년부터 1999년 사이에 출생한 독자 100명의 소리가 게재되어 있다. 세대는 다르지만, 김지영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 딸이 과거에 받았거나 앞으로 받아야만 할 경험, 감정 등이 담겨있는 것에 놀라고 당황하여 이 책을 가까운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싶거나 이 책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거나 하는 여성독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는, 외국 여성이 모국어와 일본어로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한국 사회 내 여성의 상황에 놀라서 모국의 남녀차별에 대해 반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김지영”과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가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 여성들은 그 무엇인가를 일본에 만연한 가부장제, 성차별주의 남존여비라고

표현한다.

많지는 않으나, 남성 독자들도 이 책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을 해외 문학작품으로 극찬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어머니를 회상하거나 여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되돌아 보게 된 사람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김지영의 이야기는 일본여성들에게 있는 “사토 유코(佐藤裕子: 일본에서 가장 흔한 성씨로 82년 당시 여아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지만, 이 책에서 익명으로 등장하는 한국 남성들처럼 일본 남성들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멀리 건너편에서, 김지영과 사토 유코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듯 했다.

이 책을 통해, 말해본 적 없는 일본 남성은 이름 없는 한국 남성과 어디쯤에선가 만나게 될 것인가? 아니면, “82년생 사토 다이스케(佐藤大輔: 당시 남아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름)”의 이야기를 찾아서, 강을 건너, 김지영과 사토 유코의 이야기에 뒤섞일 것인가?

## ‘김지영’과 ‘사토 유코’ 그리고 ‘나’ 사이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다른 독자들처럼 김지영의 이야기에서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이나 머릿속에 맴도는 말, 그때 느꼈던 감정 등이 강렬하게 떠올랐다.

지방 출신인 내가 동경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 부모님은 주위로부터 “외동딸인데도, 동경에 가게 되어서 기특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익숙치 않은 하이힐에, 화장, 신입사원용 정장을 마지못해 착용하고 간 동경의 한 기업 면접에서는 “당신은 외동딸 같은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을 찾아도 되지 않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아요?”라고 면접관이 괜스레 걱정해 준 적도 있었다. 대학원에서 페미니즘을 연구하려고 결정했을 때 진학 사실을 안 교수로부터는 “외동딸이니 적당히 해야 한다”라는 말도 들었었다.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연구나 일을 계속할까 고민하면서 바로 이 책의 한 에피소드처럼 남편의 “협력해준다”라는 말투나 서로가 “잃을 것들”을 둘러싸고 크게 다툰 적도 있다. 출산 후에는 가족 모두에게 내 이름이 아닌 “(아이의) 엄마”라고 불리게 되어서 마음속으로는 기분이 언짢았다. 직장에 복귀하기 위해 6개월 된 딸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때는, 친정 어머니한테 “그렇게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 맡기니 불쌍하다”는 말을 몇 차례나 들어야 했다. 그리고 “자연분만 신화”, “모유수유 신화”, “세살 아이 신화”라고 하는 출산, 육아를 둘러싼 여러 신화들, ‘엄마’, ‘아내’, ‘딸’, 그리고 ‘여자’라 불리우는 나라는 존재를 속박하는 모든 기호를 잡아당겨 떼어내면 야생마처럼 황야를 뛰쳐나와 행방을 알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럴 때마다 김지영의 어머니처럼 나를 질타하고 격려해주는 존재는

페미니즘과 그것을 통해 만나게 된 사람들이었다.

책의 저자 조남주씨와 대답했던 가와카미 미에코씨는 이 책이 남성(정신과 의사)의 시선에서 그려진 까닭에, “카탈로그화된 여성의 생애”라고 언급했으며 조남주씨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현대 여성의 인생에 대해 일체의 왜곡, 비하, 비난을 배제하고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신이 능력과 자질이 없었기 때문”이라든가 “당신이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이라면서 내쳐지지 않도록, 한국의 사회구조를 나타내는 통계나 보도자료 등은 주인공이 겪었던 에피소드들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대나 국경을 넘어서 독자들이 “나는 김지영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일본에서 이 책이 크게 주목을 받은 배경에는 서론에서 언급된 현재 진행형의 성차별, 성폭력 사건들이 이 사회에 누적되어 한국만큼은 아닐지라도 “미투운동” 등 그에 대한 논의의 제기가 길거리나 SNS를 통해서 행해지던 사회환경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별에 따른 억압이나 폭력, 불공정한 성별역할분업 등의 문제를 깊숙이 파헤치면서 여성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담은 소설, 만화, 드라마가 일본에 이미 많이 발표되어 왔고, 여성학이나 페미니즘에 관한 서적 역시 수없이 있음에도, 어째서 “82년생 김지영”은 이토록 화제가 되었던 것일까?

####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떠오른 것은 1970년대 두 번째 페미니즘의 물결이 일어났을 때 사용된 유명한 슬로건이었다. “82년생 김지영”은 바로 이 슬로건을 구현한 작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전부 페미니즘에 관한 것으로 지금까지 계속 물어져왔던 것이 아니었던가? 2019년 “82년생 김지영”이 일본 독자들에게 “이것은 내 이야기다”라고 느껴지게 했던 데에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즘 슬로건이 나타난 지 약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런 관점이 신선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나의 목소리”나 “나의 경험”을 꺼내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무려 50년이다.

게다가 객관적 데이터로 뒷받침된 한국이라는 “가깝고도 먼” 나라를 무대로 한, “보통”의 한국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 까닭에 일본에서 일본어로 읽는 우리들과는 일정 거리가 유지되므로 최종적으로는 “한국 여성은 힘들구나”라는 핑계거리도 남아있다. 일본독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지도 않고 위협받지도 않는 구도 안에서, 고작 “이것은 내 이야기다” 정도로 말했던 것은 아닐는지. “82년생 사토 유코”였다면, 이 정도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심술궂은 나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국적, 계급, 계층, 세대, 인종, 민족성, 성적 지향 등을 축으로 구분되어 불행히

도 그 구분 속에서 서로를 적대시하곤 한다. 한 예로, 일본에서는 오차노미즈 여대(お茶の水女子大学)가 국립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2020년 4월부터 트랜스젠더(MTF) 학생의 입학 을 허용할 것임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인터넷이나 페미니즘계에서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를 둘러싸고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차별적, 배타적인 발언이 대량으로 유포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타성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공표하기도 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외에 내가 페미니즘을 통해 배운 것은 우리들은 어느 한명도 "똑같은 여자"가 없다는 것이다. 경험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단절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예민하게 수용하여 서로의 경험을 말하고 받아들이는 후 "연대하는 것". 일본에서 일본국적을 가지고 일본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나는, 나 자신을 몇 번이고 김지영에 투영하곤 했었다. 물론 일본에 사는 나와 한국에 사는 "당신"의 사이에는 공유되지 않는 상황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일본은 식민지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으며, 징병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민주화 운동이라는 강렬한 기억이 없으며, 아직도 부부는 각자의 성을 사용하지 않으며, 천황제를 포기하지 않고 새 연호인 "레이와(令和) 열풍"에 빠져있다. 또한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김지영"에게도 "사토 유코"에게도 받아들이지 못할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서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되어 그 다리 위에서 "강"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연대에 대한 본연의 의미를 내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이 글을 읽으며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당신". 일본과 한국, 양 국가 모두 성별 격차 지수 순위나 성차별적 상황을 나타내는 국가별 통계에서 대체로 "사이 좋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에서 진솔한 여성으로 묘사된 "김지영"의 이야기처럼, 만약 일본에서 "사토 유코"의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면 당신은 그것을 읽을 것인가? 한국에서 "사토 유코"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 사이에 펼쳐진 두 개의 이름이 갈등의 바다를 넘어 "82년생 김지영", "82년생 사토 유코" 그리고 거기서부터 넘치듯이 밀려오는 나와 당신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다. 그것은 언젠가는 서로를 짓누르는 가부장제나 성 비대칭이라는 사회구조를 안에서부터 깨부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표 1〉 “82년생 김지영”에 게시된 언론 보도 목록

날짜	종류	게재매체	내용
2018년			
2018-03-20	Web	“더욱 더 ! 코리아”	“RedVelvet 아이린이 이 책을 읽었다고 페미니스트? 수연과 방탄소년단(BTS)의 RM도 읽었다”(원저소개)
2018-09-12		Kstyle	공유,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출연 확정(영화화 정보)
2018-10-30	신문	요미우리신문 문화면	“지금 서울에서는 책이 판매 중”(원저소개)
2018-12-14	web	CINRA.NET	“번역자 사이토 마리코(齋藤真理子)씨의 말처럼, 이 책의 인기 확산 배경을 찾는다”
2018-12-14	신문	아사히신문 오피니언면	저자 인터뷰
2018-12-18	라디오	TBS 라디오 “애프터 6 정션”	책 소개
2018-12-23	신문	교도통신	서평
2018-12-23	라디오	TBS라디오 “문화계 토크 라디오 라이프”	책 소개
2019년			
2019-01-01	신문	통일일보	서평게재
2019-01-06	신문	마이니치신문	고노스 유키코(鴻巣有希子)(번역가·수필가)서평
2019-01-09	신문	교토신문 석간 문화면	칼럼 “큰 파도 작은 파도”에서 책 소개
2019-01-10	잡지	주간춘추 1 / 17일 호	“나의 독서일기”에서 소설가 사카이 준코(酒井順子)가 책 소개
2019-01-11	web	현대비즈니스	김향청(저술가) “한국에서 ‘82년생 김지영’이 베스트셀러가 된 사회적 배경과 일본의 상황이 이렇게 비슷하다”
2019-01-16	신문	마이니치신문 간사이판	이치가와 신이(市川真意·준쿠도 서점 이케부쿠로 본점)에서 호평
2019-01-18	이벤트	서점 B&B	사이토 마리코(齋藤真理子, 책의 역자)·쿠라모토 사오리(倉本さおり, 저술가) 토크 이벤트에서 “‘82년생 김지영’의 베스트셀러 현상의 시사점”
2019-01-19	잡지	FIFARO japon 3월호	아마우치 마리코(山内マリコ, 작가) 서평
2019-01-22	잡지	주간아사히	나가노 야스히로(長瀬安浩, 소설가) “베스트셀러 해독”에서 서평
2019-01-22	web	현대비즈니스	‘김지영’을 읽은 여자가 갖는 공감, 괴로움, 부러움의 정체 - 한국여성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19-01-23	잡지	SPRING 3월호	책 소개
2019-01-23	web	J-CAST BOOK 와치	한국의 ‘미투운동’ 열풍 속에 100만부 판매된 소설
2019-01-24	잡지	주간신조 1/31호	사쿠마후미코(佐久間文子, 문예저널리스트)의 서평
2019-01-25	라디오	TBS라디오 “오기카미 치키(荻上チキ)·Session-22”	사이토 마리코·송미(번역가)·유키 사오리 출연 “지금 주목 받는 현대한국문학, 그 배경과 매력은?”
2019-01-26	라디오	J-WAVE BOOK BAR “한 권에 혼을 담아”	오이리 겐지(笈入建志, 오라이도서점(往来堂書店) 점장)의 책 소개
2019-01-28	잡지	이코노미스트 2/25호	오기카미 치키(평론가)의 서평
2019-02-01	신문	동양경제일보	서평



날짜	종류	게재매체	내용
2019-02-01	이벤트	서점 "title"	사이토 마리코·승미·코야마우치 소노코(사회복지사, 번역가)의 토크 이벤트 "한일 여성과 페미니스트의 현 위치" 개최
2019-02-01	잡지	오렌지페이지 2/17호	책 소개
2019-02-03	신문	북해도신문	나가에 아키라(永江朗, 저술가)의 서평
2019-02-06	web	좋은책 좋은 날(好書好日)	사이토 마리코 인터뷰, "한국에서 찬반양론의 밀리언셀러 '82년생 김지영' 번역자, 사이토 마리코씨에게 듣는 '공감과 토론을 부르는 이유'"
2019-02-06	web	산케이신문 "프리미엄"	한국의 베스트셀러 소설, 일본에서도 이례적 히트 '여성의 힘든 삶'에 공통점
2019-02-06	web	telling	사토 토모미(佐藤友美, 저술가) 칼럼 "한국 여성은 화내고 일본여성은 운다. 읽는 것만으로도 비난을 받는 책이라고?"
2019-02-06	잡지	다빈치 3월호	아마자키 마도카(山崎まどか, 칼럼니스트)의 서평
2019-02-07	신문	마이니치신문 "특집와이드"	"한국소설 '82년생 김지영' 이례적인 베스트셀러"
2019-02-07	잡지	신초 3월호	스즈키 미노리(鈴木みのり, 저술가)의 서평
2019-02-07	잡지	문학계 3월호	사이토 마리코의 기고
2019-02-09	잡지	문예춘추 3월호	후루이치 켄쥬(古市憲寿 평론가, 사회학자)의 서평
2019-02-09	신문	니케이신문	오야마다 히로코(小山田浩子, 소설가)의 서평
2019-02-12	잡지	니케이신문 석간	한국에서 100만부 판매 된 '보통' 페미니스트 소설에 공감
2019-02-14	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춘추"	책 소개
2019-02-15	잡지	주간 금요일 2/15호	나가세 우미(長瀬海, 저술가)의 서평
2019-02-19	web	메일 매거진 "THE NIKKEI MAGAZIN STYLE AI"	아마자키 마도카(山崎まどか, 칼럼니스트)의 서평
2019-02-19	web	아사히신문 GLOBE+	"'82년생 김지영'의 저자가 방일, 일본에서도 대히트된 배경을 찾는다"
2019-02-19	이벤트	키노쿠이나서점	"'82년생 김지영', '현남 오빠에게 - 한국 페미니스트 소설집' 간행, 저자 방일 기념 특별대담 조남주X가와카미 미에코(川上未映子)"
2019-02-19	web	다빈치뉴스	서평
2019-02-20	web	우토비(ウートビ)	'여자는 애교'라는 것은 저주... 베스트셀러 '82년생 김지영'을 읽다
2019-02-20	web	BUSINESS INSIDER JAPAN	'82년생 김지영' 한국에서 100만부 판매된 이유는? 여성들의 반격은 일본에서도 공감되는가?(저자 방일 기념 인터뷰)
2019-02-21	web	BEAUTIFUL 40's	서평
2019-02-23	잡지	GINGER 4월호	누쿠미즈 유카리(温水ゆかり, 저술가)의 서평
2019-02-23	신문	주간독서인	휴즈키 유코(文月悠光, 시인) "'자기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점잖게, 하지마!"
2019-02-24	web	LIMO	"'주부는 옛날보다 편해졌다'라고 말하는 세대, 그런 말을 듣는 세대의 흠은 채워지지 않았다!?"
2019-02-24	잡지	TV Bros. 4월호	오우타이 아키라(王谷晶, 소설가)의 서평

날짜	종류	게재매체	내용
2019-02-24	web	아사히신문 GLOBE+	“‘김지영’의 인생은, ‘나의 이야기’, 저자 조남주, 카와카미 에이코와 작품을 논하다”
2019-02-25	잡지	크로와상 992호	타키이 토모요(瀧井朝世, 저술가)의 서평
2019-02-25	web	중앙일보	“일본 여성을 올린 한국 소설 ‘82년생 김지영’...‘그건 차별이었던걸까?’”
2019-02-26	web	CINRA	“‘82년생 김지영’의 저자가 방일. ‘사회의 변화와 함께 하는 소설’”
2019-02-26	라디오	TBS라디오 “애프터 6 정션”	“지금이 읽을 때! 한국문학을 더욱 즐기려면?”
2019-02-28	라디오	TBS라디오 “아리카와 츠요시(荒川強啓) 데이 캐치!”	책 소개
2019-03-01	잡지	부인화보 4월호	책 소개
2019-03-02	신문	니케이신문	‘주간 오라이(文化往来)’에서 저자 방일 이벤트 개최
2019-03-03			twitter 문학상 해외부문 제2위
2019-03-03	신문	카나가와신문	‘저자의 초상’에서 저자 방일 취재 기사게재
2019-03-04	신문	산케이뉴스	“‘여성차별은 감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화제의 한국소설가 방일”
2019-03-04	신문	엄마의 벗 4월호	아소 하루민(浅生ハルミン, 일러스트레이터, 수필가)에 의한 서평
2019-03-05	신문	요미우리신문	‘책요미우리당’의 저자방일취재
2019-03-05	잡지	계간 우타카마 2019 봄호	오이리 켄지의 서평
2019-03-05	신문	후밍	“‘82년생 김지영’의 저자 조남주씨가 방일”
2019-03-06	web	inidas	아메미야 카린(雨宮処凛, 작가, 정치활동가)의 책 소개
2019-03-06	잡지	한국어학습 채널 hana vol.30	특집
2019-03-08	잡지	주간금요일 1223호	저자방일 취재
2019-03-08	web	monokaki	사이토 마리코 인터뷰 “‘마음에 묻혀있던 것이 흘러내리는’ 소설이기에 가능했다”
2019-03-08	T V	NHK 후쿠오카 방송국 “6시10분! 후쿠오카”	김지영 기자와 저자의 심층 인터뷰 방송
2019-03-10	라디오	J-WAVE ‘across the sky」	책 소개
2019-03-10	신문	아카하타(赤旗)	책 소개
2019-03-14	web	포어사이트	저자방일 취재기자
2019-03-16	신문	아사히신문	‘사람’란에 저자소개
2019-03-16	web	ROYAMBOOKCHOICE	아마시타 유우(山下優, 아오야마 북센터 본점) 책 소개
2019-03-20	잡지	여자들의 21세기 No.97	서평
2019-03-22	web	한겨레신문	특파원 칼럼 “‘82년생 김지영’과 ‘안녕, 미니스커트’”
2019-03-24	신문	요미우리신문	무라타 사야카(村田紗耶香, 소설가)의 서평
2019-03-24	신문	교도통신	“‘82 년생 김지영’ 남성우위사회에 폐부를 찌르다, 한국문학이 베스트셀러에”

날짜	종류	게재매체	내용
2019-03-26	잡지	부인공론 4/2호	'베스트셀러 산책'에서 가와구치 하루미(川口晴美, 시인)의 책 소개
2019-03-26	web	ELLE 온라인	스즈키 료미(鈴木涼美, 사회학자, 작가) "'#Ku Too'는 김지영을 행복하게 할까?"
2019-03-28	잡지	VOGUE 5월호	'번역가 사이트 마리코가 선택하는 지금 반드시 읽어야만 할 현대한국문학'
2019-03-31	신문	미나니니혼신문	서평
2019-03-31	신문	아사히신문	'그때그때의 말'에서 책 소개
2019-04-01	web	좋은책 좋은 날(好書好日)	사이트 마리코와 승미의 강연회(아사히 북 아카데미) "'폐활량'의 풍요로움이야말로 한국 문학의 재미, 번역가 사이트 마리코씨와 승미씨가 강연"
2019-04-03	web	BUSINESS INSIDER JAPAN	"한국 문학 붐의 도래! 출판업계를 움직이는 방탄소년단(BTS)의 인기와 100만부 작가의 신작 비화"
2019-04-04	web	HUFFPOST	"오가와 타마카(小川たまか, 저술가) "한국의 페미니스트는 고조되고 있는데, 어쩌서 일본에서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되었던 일"
2019-04-05	잡지	VERY 5월호	"한국에서 100만부 돌파! 영화화 결정! '82년생 김지영'이 우리들에게 묻는다"
2019-04-05	잡지	다빈치 5월호	'첫눈에 반한 대상(大賞)' 수상
2019-04-08	신문	공명신문	고노 키요미(河野貴代美, 페미니스트 카운슬러)의 서평
2019-04-08	잡지	창 5·6호	'다큐먼트 아메미야☆혁명'에서 책 소개
2019-04-10	잡지	참잡지 5월호	후지와키 쿠니오(藤脇邦夫, 논픽션 작가)의 서평
2019-04-11	잡지	스바루 5월호	에나미 아미코(江南亜美子, 평론가)의 서평
2019-04-11	잡지	주간문춘 4/18호	'베스트셀러 해부'에서 소개
2019-04-15	잡지	Pen 5/1·5/15호	Pen이 고른 4월에 주목할 책
2019-04-15	신문	아사히신문	여성의 어려움을 담은 한국 소설 히트, 냉정한 필치, 일본에서도 '조용한 공감'
2019-04-16	잡지	선데이 매일 4/28호	시라카와 모모코(白河桃子, 저널리스트)의 서평
2019-04-19	web	데일리 신초(デイリー新潮)	'한국인 남성이 일본 Amazon에 '별★1개'의 리뷰를 다는 기현상은 왜 발생한 것인가?'
2019-04-20	잡지	story box 5월호	사이트 마리코 인터뷰
2019-04-21	TV	아사히방송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인 '패널 퀴즈 여덟 25'에서 이 책의 제목이 출제문제로 뽑혔음.
2019-04-26	잡지	주간문춘 WOMEN GW호	책 소개

지쿠마서방(筑摩書房)'82년생 김지영'특설사이트(<http://www.chikumashobo.co.jp/special/kimjiyoung/>2019년5월10일 최종관람)에서 필자 작성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82年生まれ、キム・ジョン』を日本女性の「私」が読むということ

大野 聖良 独立行政法人 日本學術振興會 特別研究員

### はじめに

『82年生まれ、キム・ジョン』。日本では2018年12月に筑摩書房から邦訳が刊行され、主要書店で文芸ランキング1位を軒並み獲得、刊行2日目には重版、4日目には3版重版が決定し、2019年5月時点で発行部数は13万部にのぼる。

刊行直後から、SNS上でフェミニストの友達・先輩たちは、韓国の女性の生きづらさを生々しく描いた韓国「フェミニズム」小説を読んでいるとポストしはじめた。1、2カ月すると、ネットで『82年生まれ、キム・ジョン』の書評や感想が溢れかえり、毎月購読していた新聞や情報サイト、よく聴くラジオ番組、たまたま美容院の待ち時間中に開いた女性雑誌、職場の本棚、そして乗車した電車の動画広告にまで、『82年生まれ、キム・ジョン』を目にすることになった。普段あまり文芸作品を読まない私にも、同書が日本で大きな波を生みだしつつある、フェミニスト必読の書であることが、十二分に理解できた。

しかし、正直に言おう。当初、私は『82年生まれ・キム・ジョン』を読むつもりはなかった。流行ってる本なんて読みたくない、という単なる天邪鬼な性格もあるが、読む前から、この本は、途方もない虚無感を私に残すにちがいないと思っていたからである。同書をすでに読んだ私の友人から、「本当に韓国のひどい女性差別の話で、読んでて救いなんてこれっぽっちもなかった。」という感想を聞き、読むのを躊躇っていたのだ。

ここ1年、私が暮らす日本社会では「ジェンダー不平等」、というよりも「ジェンダーに基づく不正・不条理」と呼ばざるを得ない出来事で溢れかえっている。例えば、財務省事務次官、文芸評論家、ジャーナリスト、小中高大学の教員によるセクハラ・パワハラ・性暴力、就活セクハラ<sup>1)</sup>、東京医大等の入試得点差別、週刊誌記事「ヤレル女子大生ランキング」問題<sup>2)</sup>、司法における性暴力無罪判決と被害者バッシング、女性議員や女性社会活動家が被った商品着払い被

害<sup>3)</sup>……。これらはほんの一端にすぎず、これらが事件としてマス・メディアで報道されただけでもマシかもしれない。目を背けたいような、日本社会のジェンダーをめぐる差別・暴力の現実を突きつけられ、韓国という、異なる社会で生きる女性のフィクションの物語を読む余裕は全くなかった。いずれは読むけど、今はいいと思っていた。

しかし、ネットでも現実世界でも至るところで『82年生まれ、キム・ジョン』の表紙を目にし、これは、今、読んだ方がいいという内なるサインなのかもしれない、と思い直すことにした。私が非常勤講師として教える大学のジェンダー論の授業の受講生の何人かが、この本を読んだことをわざわざ授業後に教えてくれたこと、日本版の装丁画が私の好きなルネ・マグリットを思わせる印象的な女性像だったこと、そして、私がキム・ジョンと同世代の81年生まれ・既婚・未就学女児の母親であることなど、同書は私の心にずっと引っかかっていた。

本稿では、『82年生まれ、キム・ジョン』に関する日本のマス・メディアなどから、日本社会による同書への反応を概観したうえで、一人の日本女性である私「81年生まれ、大野聖良」の目線からこの本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

## 日本社会における『82年生まれ、キム・ジョン』

前述のとおり、日本で本書が刊行されるやいなや、主要新聞、雑誌、webニュースサイト、ラジオなどありとあらゆる媒体がこの本を取り上げた。出版元の筑摩書房が開設した『82年生まれ、キム・ジョン』特別サイトで公表されたメディア報道一覧をみると、刊行直後から4月下旬まで、連日、どこかで、誰かがこの本のことを話題にしてきたことがわかる（表1参照）。本書タイトルをネット検索すれば、書評や感想を記した個人サイトは数知れず、大なり小なりの読書会も日本のあちこちで開催されてきた。

このような流行ぶりは販売・広報戦略の賜物ともいえるが、文芸分野に限らず、経済、社会問題、ファッション、ライフスタイルなど様々なジャンルの、異なる政治的立場にある媒体で本書が取り上げられた。2月中旬に著者チョ・ナムジュ氏が来日した際には、日本最大の書店である紀伊国屋書店（東京・新宿）で記者会見と芥川賞作家の川上未映子氏との対談イベント

- 
- 1) 就職活動中の学生に対する企業側の人間(主に男性社員)による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
  - 2) 2019年12月に男性週刊誌が、性行為に及びやすい女子大生が多い大学および女性たちの特徴を紹介した特集記事を掲載した事件。女性蔑視であると批判が相次ぎ、大学に通う女性たちが記事撤回や謝罪を求める署名活動を立ち上げ、4万もの署名が寄せられた掲載された大学当局も出版社に対して抗議した。後に署名活動を立ち上げた女性たちは同誌編集部と話し合いを持ち、謝罪と今後の誌面についての改善要求を申し入れた。
  - 3) 性差別や性暴力について積極的に取り組み、メディアに発信している、弁護士、政治家、作家、市民運動家らに、下着や化粧品、健康食品など頼んでもいない通販商品が着払いで送りつけるケースが相次ぎ、2019年2月に被害にあった7人の女性たちが記者会見を行った。

トも開催されている。イベントでは用意されていた400席（有料）があつという間に埋まり、その多くが20代・30代の女性だったという。

日本での刊行前は、日本でも人気のある韓国芸能人が『82年生まれ、キム・ジョン』を読んだ、という芸能ニュースの枠で本書のことが伝えられていたが、刊行後には同書の韓国社会でのインパクトが多く紹介されてきた。例えば、同書が韓国で100万部超えのベストセラーとなった社会的背景や韓国のフェミニズム運動や市民デモの活発さ、本書が韓国の#MeToo運動を盛り上げ、社会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こと、「82年生まれ、キム・ジョン法案」という雇用・保育関連の法案が発議されていること、女性からの大きな共感だけでなく、男性から強いバッシングが起り、巡り巡ってAmazonでの日本語翻訳本のコメント欄で、韓国男性・女性の間で同書をめぐる激しい議論が繰り広げられていることなどが紹介されてきた。

他方、興味深いのは、本書の紹介や文学的意義を見出すことに留まらず、同書を通して家父長制的・性差別的日本社会を振り返り、その社会で生きる「わたしたち」にこの状況を問い直すよう呼びかける記事が少なくなかったことである。

筑摩書房の同書特設サイトには、1954年から1999年生まれまでの読者100人の声が掲載されている。世代は異なれど、キム・ジョンの物語の中に、自分や自分の母親・娘が過去に受けてきた・今後引き受けねばならないだろう経験・感情があることに驚き、戸惑い、同書を身近な人に読ませたい・誰かと語り合いたいと思う女性読者の声がつづられている。中には、日本以外にルーツをもつ女性が、自分の母語と日本語で『82年生まれ、キム・ジョン』を読み、韓国社会の女性の状況に驚き、母国の社会の男女差別に思いを巡らす。そして、内なる「キム・ジョン」の物語は語る・聞く価値のあるものだとして認識し、そうすることで「何か」を可視化させることにつながると気付いている。彼女たちは、それを日本に蔓延る家父長制、性差別主義や男尊女卑と表現する。

わずかながら男性読者も感想を寄せている。海外文学作品として同書を絶賛するものもいれば、自分の母を思い出す者、女性に対するこれまでの自分の振る舞いを恐々と点検しはじめる者もいる。しかし、みな自分の経験を語ることはない。キム・ジョンの物語は、日本女性たちの中にある、「佐藤裕子」（日本で最も多い苗字と82年当時女兒に人気の名前）の物語を引き揚げるアンカーとなっているが、本書で名付けられることのなかった韓国男性たち同様、日本男性も自らを名乗ることなく、離れた対岸から、キム・ジョンと佐藤裕子の語らいを眺めているように思えた。

同書を通じて、語ることのない日本男性は名前のない韓国男性とどこかの岸辺で出会うのだろうか。それとも、「82年生まれ、佐藤大輔」（当時の男児に人気の名前）の物語を見出し、河を渡り、キム・ジョンと佐藤裕子の語らいに交じり合うのだろうか。

## 「キム・ジョン」と「佐藤裕子」と「私」の間で

本書を読み、私も他の読者同様、キム・ジョンの物語が、私がいつか経験した出来事や頭の中で巡った言葉、そのときに抱いた感情を強烈に思い出させた。

地方出身の私が東京の大学に合格し入学したとき、親は周りから「一人娘なのに東京に出して奇特だ」と言われていた。慣れないヒールに、化粧、リクルートスーツを嫌々身に着けながら臨んだ、東京のある企業の就職面接では「君、一人娘みただけど、実家に帰って仕事みつけないでいいの？お父さん、お母さん、心配しないの？」と面接官に無駄に「心配」された。大学院でフェミニズムを研究しようと決めたとき、進学を知った教授から「一人娘なんだからほどほどにしないと」と言われた。妊娠期には、どうやって研究・仕事を続けていくのかに悩み、まさに本書のエピソードの通り、夫の「協力する」という物言いや互いが「失うもの」をめぐる大喧嘩したこともある（未だに解決していない）。出産を機に家族皆から、私の名前ではなく「ママ」と呼ばれるようになり、心底気持ち悪かった。仕事に復帰するため、6ヶ月の娘を保育園に預けることに、実母に「そんな小さい時期から預けて可哀そうだ」と幾度も電話で言われた。そして、「自然分娩神話」「母乳育児神話」「三歳児神話」という、出産・子育てをめぐる神話たち。「母」「妻」「娘」「女」という私という存在を束ね、繋ぎ止める記号すべてをひきちぎり、野生の馬のごとく、荒野を駆けだして行方知らずになりたいと思うこともある。そのようなとき、キム・ジョンの母のように、私を叱咤し励ましてくれるもの、それはフェミニズムやそれを通じて出会った人々だった。

著者チョ・ナムジュ氏と対談した川上未映子氏はこの本を男性（精神科医）の目線から描かれた故に「カタログ化された女性の半生」といい、チョ・ナムジュ氏は女性のだれしもが経験するエピソードを集め、現代の女性の人生を一切の歪み、卑下、非難を排除して書き残したかったという。加えて「あなたの能力・資質がなかったから」「あなたが敏感すぎるから」と切り捨てられないよう、韓国の社会構造を示す統計や報道資料が彼女のエピソードの共有性を高めており、だからこそ世代や国境を越えて、読者は「私はキム・ジョンだ」と思える瞬間を分かち合っているのだろう。私もそうだ。

日本で『82年生まれ、キム・ジョン』が大きく注目された背景には、冒頭のような現在進行形の性差別・性暴力事件がこの社会で累積し、韓国ほどではないものの、#MeToo運動などそれらに対する異議申し立てが路上やSNSを通じてな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という社会的文脈が影響している。しかし、これまで、ジェンダーによる抑圧や暴力、不公正や性別役割分業の問題に深く切り込み、女性の生きづらさや苦しみを織り込んだ小説、漫画、ドラマは日本でいくらかでも発表されてきたし、女性学・フェミニズムに関する書籍も山ほどあるのに、なぜ『82



年生まれ、キム・ジョン』だったのか。

「The personal is political. 個人的なことは政治的なこと」。

私が本書を読み終えたときに思い出したのが、1970年代第二波フェミニズムが挙げたこの有名なスローガンだ。『82年生まれ、キム・ジョン』はまさにこの一文を体現した作品であろう。しかし、本書で描かれてきたことはすべて、フェミニズムがこれまでずっと問いかけてきたことではなかったか。2019年に『82年生まれ、キム・ジョン』が日本の読者に「これは私の物語だ」と言わせたということは、「個人的なことは政治的なこと」というフェミニズムの言葉が生まれて約50年たった現在でさえ、この視点が新鮮に感じられるほど、私たちはいまだに「私の声」「私の経験」を発すること・受け止めることを過小評価する社会で生き続け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もう一度言おう。50年、である。

しかも、客観的データに裏付けされた、韓国という「近くて遠い」国を舞台にした、「普通」の韓国女性の話として、日本にて日本語で読む私たちと一定の距離を保ち、最終的に「韓国の女性って大変だね」という逃げ道も残されてる。日本の読者は自分の立ち位置を降りることもなく、脅かされることもない構図の中で、ようやく「これは私の物語だ」と言えたのではないか。『82年生まれ、佐藤裕子』ならば、ここまで受け入れられないのではないか。天邪鬼な私はそのように思えてならないのだ。

私たちは、国籍、階級、階層、世代、人種、エスニシティ、性的指向等を軸に分断され、残念なことにその分断の中でしばしば敵対する。例えば、日本では、お茶の水女子大学が国立女子大学として初めて、2020年4月からトランスジェンダー（MTF）の学生の受入れを表明した。しかし、これをきっかけに、ネット・フェミニズムで「女性」というカテゴリーをめぐる、トランスジェンダー女性への差別的・排除的発言が大量に流布する事態が発生し、一部のフェミニストが「トランス女性に対する差別と排除に反対する」声明を公表している。

「個人的なことは政治的なことだ」の他に、フェミニズムが私に教えてくれたことは、私たちはだれ一人として「同じ女」はいないということだ。経験の共有性をもって分断を乗り越えるだけでなく、各々のintersectionality（交差性）にセンシティブになり、互いの経験を発し・受け止めたうえで「連帯する」こと。日本で日本国籍をもち、日本女性として生きる私は、何度もキム・ジョンに自分を重ねた。もちろん、日本で生きる私と韓国で生きる「あなた」の間には共有しない文脈も多々ある。例えば、日本は植民地時代を経験しておらず、徴兵制は今のところなく、民主化運動の強烈な記憶はないし、いまだに夫婦は別々の姓を名乗れず、天皇制を手放すことなく「令和フィーバー」に浸っている。加えて、同じ社会で生きていても、「キム・ジョン」でも「佐藤裕子」でも回収できない物語はいくらでもあるだろう。それでも、別々の岸边にいる私たちにとって、幾重にも異なる互いの経験を語り聞かせることが互いを繋ぐ橋となり、

その橋の上で各々の岸を形成してきた「河」の流れを変える方策をともに考えることはできるはずだ。『82年生まれ、キム・ジョン』はそのような連帯の在り方を私に改めて思い出させてくれた。

本稿を読んでくださっている、韓国社会で生きている「あなた」。私の社会とあなたの社会は、ともにジェンダーギャップ指数のランクや性差別的状況を示す国別統計の中で、大概「仲良く」低水準に留まり続けている。あなたの社会において、等身大の女性として描かれた「キム・ジョン」の物語のように、もし、私の社会で「佐藤裕子」の物語が紡がれたのなら、あなたはそれを読んでくれるだろうか。あなたの社会で「佐藤裕子」はどのように受け止められるだろうか。私たちの間に広がる、二つの名前がせめぎ合う海を越えて、「82年生まれ、キム・ジョン」、「82年生まれ、佐藤裕子」、そしてそれらから溢れんばかりにはみ出す、私とあなたの物語を、ともに語り合いたい。それは、いつか、互いを覆う、家父長制やジェンダー非対称性という社会構造を内から食い破る力になると私は信じている。

〈表 1〉日本における『82년생まれ、김·지윤』に関するニュース一覧

日付	種類	掲載媒体	内容
2018年			
2018-03-20	web	「もっと！コリア」	「Red Velvet アイリンがこの本をよんだからとフェミニスト？スヨンとBTS のRMも読んでいる」(原著紹介)
2018-09-12		Kstyle	コン・ユ、映画『82년생まれ 김·지윤』に出演を確定(映画 化情報)
2018-10-30	新聞	読売新聞文化面	「本を売る、今、ソウルでは」(原著紹介)
2018-12-14	web	CINRA.NET	「翻訳者の斎藤真理子氏の言葉と共に、本書の広がり背景を 探る」
2018-12-14	新聞	朝日新聞オピニオン面	著者インタビュー
2018-12-18	ラジオ	TBSラジオ「アフター6ジャンク ション」	本書紹介
2018-12-23	新聞	共同通信	書評
2018-12-23	ラジオ	TBSラジオ「文化系トークラジオ Life」	本書紹介
2019年			
2019-01-01	新聞	統一日報	書評掲載
2019-01-06	新聞	毎日新聞	鴻巣有希子(翻訳家・エッセイスト)書評
2019-01-09	新聞	京都新聞夕刊文化面	コラム「大波小波」にて本書紹介
2019-01-10	雑誌	週刊文春1/17日号	「私の読書日記」にて酒井順子(小説家)による本書紹介
2019-01-11	web	現代ビジネス	金香清(ライター)「韓国で『82년생まれ、김·지윤』が大ヒッ トした社会的背景—日本とこんなにも状況が似ている」
2019-01-16	新聞	毎日新聞関西版	市川真意(ジュンク堂書店池袋本店)による書評
2019-01-18	イベント	本屋B&B	斎藤真理子(本書翻訳者)・倉本さおり(ライター)トークイベ ント「『82년생まれ、김·지윤』ベストセラー現象が示唆する こと」
2019-01-19	雑誌	FIFARO japon 3月号	山内マリコ(作家)書評
2019-01-22	雑誌	週刊朝日	長瀬安浩(小説家)「ベストセラー解説」にて書評
2019-01-22	web	現代ビジネス	「『김·지윤』を読んだ女子が抱く、共感・苦しさ・羨ましさ の正体—韓国女性は『声を上げる』を知っている」
2019-01-23	雑誌	SPRING3月号	本書紹介
2019-01-23	web	J-CAST BOOK ウォッチ	「韓国『#Me Too 運動』の中で100万部売れた小説」
2019-01-24	雑誌	週刊新潮1/31号	佐久間文子(文芸ジャーナリスト)による書評
2019-01-25	ラジオ	TBSラジオ「荻上チキ・Session- 22」	斎藤真理子・すんみ(翻訳家)・倉本さおり出演「いま注目をあ つめる現代韓国文学、その背景と魅力は？」
2019-01-26	ラジオ	J-WAVE BOOK BAR「一冊入魂」	笈入建志(往来堂書店店長)による本書紹介
2019-01-28	雑誌	エコノミスト2/25号	荻上チキ(評論家)による書評
2019-02-01	新聞	東洋経済日報	書評

日付	種類	掲載媒体	内容
2019-02-01	イベント	書店「title」	斎藤真理子・すみみ・小山内園子(社会福祉士、翻訳家)トークイベント「日韩女性とフェミニズムの現在地」開催
2019-02-01	雑誌	オレンジページ2/17号	本書紹介
2019-02-03	新聞	北海道新聞	永江朗(著作家)による書評
2019-02-06	web	好書好日	斎藤真理子インタビュー「韓国で賛否両論のミリオンセラー『82年生まれ、キム・ジヨン』翻訳者・斎藤真理子さんに聞く『共感と議論を呼ぶ理由』」
2019-02-06	web	産経新聞「プレミアム」	「韓国のベストセラー小説、日本でも異例のヒット『女性の生きづらさ』に共通項」
2019-02-06	web	telling	佐藤友美(ライター)コラム「韓国女性は怒り日本女性は泣く。読むだけでバッシングされる本って？」
2019-02-06	雑誌	ダ・ヴィンチ3月号	山崎まどか(コラムニスト)による書評
2019-02-07	新聞	毎日新聞「特集ワイド」	「韓国小説『82年生まれ、キム・ジヨン』異例のベストセラー」
2019-02-07	雑誌	新潮3月号	鈴木みのり(ライター)による書評
2019-02-07	雑誌	文藝界3月号	斎藤真理子による寄稿
2019-02-09	雑誌	文藝春秋3月号	古市憲寿(評論家、社会学者)による書評
2019-02-09	新聞	日経新聞	小山田浩子(小説家)による書評
2019-02-12	新聞	日経新聞夕刊	「韓国で100万部『普通』のフェミニズム小説に共感」
2019-02-14	新聞	日本経済新聞「春秋」	本書紹介
2019-02-15	雑誌	週刊金曜日2/15号	長瀬海(ライター)による書評
2019-02-19	web	メールマガジン「THE NIKKEI MAGAZIN STYLE All」	山崎まどか(コラムニスト)による書評
2019-02-19	web	朝日新聞GLOBE+	「『82年生まれ、キム・ジヨン』著者が来日へ、日本でも大ヒットの背景を読む」
2019-02-19	イベント	紀伊国屋書店	「『82年生まれ、キム・ジヨン』『ヒョンナムオッパヘー韓国フェミニズム小説集』刊行・著者来日記念 特別対談 チョ・ナムジュ×川上未映子」
2019-02-19	web	ダ・ヴィンチニュース	書評
2019-02-20	web	ウートピ	「『女は愛嬌』って呪い…ベストセラー『82年生まれ、キム・ジヨン』を読む」
2019-02-20	web	BUSINESS INSIDER JAPAN	「『82年生まれ、キム・ジヨン』韓国で100万部なぜ売れた？女性たちの反撃は日本でも共感されるか」(著者来日記念取材)
2019-02-21	web	BEAUTIFUL 40's	書評
2019-02-23	雑誌	GINGER4月号	温水ゆかり(ライター)による書評
2019-02-23	新聞	週刊読書人	文月悠光(詩人)「自分自身の“声”を取り戻すために『おとなしく、するな！』」(書評)
2019-02-24	web	LIMO	「主婦は昔よりラクになった」という世代、言われる世代の溝はうまらない！？」
2019-02-24	雑誌	TV Bros.4月号	王谷晶(小説家)書評

日付	種類	掲載媒体	内容
2019-02-24	web	朝日新聞GLOBE+	「キム・ジョンの人生は“私の物語”、著者チョ・ナムジュ、川上未映子と作品を語る」
2019-02-25	雑誌	クロワッサン992号	瀧井朝世(ライター)による書評
2019-02-25	web	中央日報	「日本女性を泣かせた韓国小説『82年生まれ、キム・ジョン』…『あれは差別だったのか』」
2019-02-26	web	CINRA	「『82年生まれ、キム・ジョン』著者が来日、『社会の変化と共にある小説』」
2019-02-26	ラジオ	TBSラジオ「アフター6ジャンクション」	「今が読みどき！韓国文学をもっと楽しむには？」
2019-02-28	ラジオ	TBSラジオ「荒川強啓デイ・キャッチ！」	書籍紹介
2019-03-01	雑誌	婦人画報4月号	書籍紹介
2019-03-02	新聞	日経新聞	「文化往来」にて著者来日イベント掲載
2019-03-03			twitter文学賞海外編第二位
2019-03-03	新聞	神奈川新聞	「著者の肖像」にて著者来日取材記事
2019-03-04	新聞	産経ニュース	「『女性差別は感情では解決できない』話題の韓国小説が来日」
2019-03-04	新聞	母の友4月号	浅生ハルミン(イラストレーター・エッセイスト)による書評
2019-03-05	新聞	読売新聞	「本よりみり堂」にて著者来日取材
2019-03-05	雑誌	季刊うたかま2019春号	箕入建志による書評
2019-03-05	新聞	ふえみん	「『82年生まれ、キム・ジョン』の著者チョ・ナムジュさんが来日」
2019-03-06	web	inidas	雨宮処凛(作家、政治活動家)による本書紹介
2019-03-06	雑誌	韓国語学習ジャーナルhana vol.30	特集
2019-03-08	雑誌	週刊金曜日1223号	著者来日取材
2019-03-08	web	monokaki	斎藤真理子インタビュー「『心に埋めたものが流れだす』小説だからできること」
2019-03-08	T V	NHK福岡放送局「ロクいち！福岡」	キム・ジョン記者による著者ロングインタビュー放送
2019-03-10	ラジオ	J-WAVE 「across the sky」	本書紹介
2019-03-10	新聞	赤旗	本書紹介
2019-03-14	web	フォーサイト	著者来日取材記事
2019-03-16	新聞	朝日新聞	「ひと」欄 著者紹介
2019-03-16	web	ROYAMBOOKCHOICE	山下優(青山ブックセンター本店)本書紹介
2019-03-20	雑誌	女たちの21世紀 No.97	書評
2019-03-22	web	ハンギョレ新聞	[特派員コラム]「『82年生まれ、キム・ジョン』と『さよならミニスカート』」
2019-03-24	新聞	読売新聞	村田紗耶香(小説家)による書評
2019-03-24	新聞	共同通信	「『82年生まれ キム・ジョン』男性優位社会に風穴 韓国文学がベストセラー」

日付	種類	掲載媒体	内容
2019-03-26	雑誌	婦人公論4/2号	『ベストセラー散歩』にて川口晴美(詩人)による本書紹介
2019-03-26	web	ELLEオンライン	鈴木涼美(社会学者、作家)『『#Ku Too』はキム・ジョンを幸福にするか』
2019-03-28	雑誌	VOGUE5月号	『翻訳家・斎藤真理子を選ぶ 今、読むべき現代韓国文学』
2019-03-31	新聞	南日本新聞	書評
2019-03-31	新聞	朝日新聞	『折々のことば』にて本書紹介
2019-04-01	web	好書好日	斎藤真理子・すみみ講演会(朝日ブックアカデミー)『『肺活量』の豊かさこそ韓国文学のおもしろさ 翻訳家・斎藤真理子さん、すみみさんらが講演』
2019-04-03	web	BUSINESS INSIDER JAPAN	『韓国文学ブーム到来！出版界動かくBTS人気と100万部作家の新作秘話』
2019-04-04	web	HUFFPOST	小川たまか(ライター)『韓国のフェミニズムは盛り上がっているのに、なぜ日本は盛り上がっていないの？って言われる件』
2019-04-05	雑誌	VERY5月号	『韓国で100万部突破！映画化も決定！『82年生まれ、キム・ジョン』が私たちに問いかけるもの』
2019-04-05	雑誌	ダ・ヴィンチ5月号	『ひとめ惚れ大賞』受賞
2019-04-08	新聞	公明新聞	河野貴代美(フェミニストカウンセラー)書評
2019-04-08	雑誌	創5・6号	『ドキュメント雨宮☆革命』にて本書紹介
2019-04-10	雑誌	本の雑誌5月号	藤脇邦夫(ノンフィクション作家)書評
2019-04-11	雑誌	すばる5月号	江南亜美子(書評家)による書評
2019-04-11	雑誌	週刊文春4/18号	『ベストセラー解剖』にて紹介
2019-04-15	雑誌	Pen5/1・5/15号	『Penが選んだ、4月の注目BOOK』
2019-04-15	新聞	朝日新聞	『女性の困難描く、韓国の小説ヒット 冷静な筆致、日本でも『静かな共感』』
2019-04-16	雑誌	サンデー毎日4/28号	白河桃子(ジャーナリスト)による書評
2019-04-19	web	デイリー新潮	『韓国人男性が日本のAmazonに『★1つ』のレビューを投稿しまくる珍現象はなぜ起きたのか』
2019-04-20	雑誌	story box5月号	斎藤真理子インタビュー
2019-04-21	TV	朝日放送テレビ	クイズ番組『パネルクイズアタック25』で書名が出題問題に選ばれる
2019-04-26	雑誌	週刊文春WOMEN GW号	本書紹介

筑摩書房『82年生まれ、キム・ジョン』特設サイト(<http://www.chikumashobo.co.jp/special/kimjiyoung/>2019年5月10日最終閲覧)から筆者作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합의

김선영 KOICA 사업전략기획실 젠더전문관\*



유엔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이하 CSW)는 성평등 달성을 위한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대표, 관련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와 더불어 풍성한 side event들로 구성된 최대의 젠더축제로 일컬어진다. 한국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주축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매년 파견하였으며 대표단에는 외

\* 국제개발협력: 농촌지역경제개발 전공. 주요 연구는 'KOICA 사업의 성평등 실행 강화 방안'(KOICA, 2018), '인권기반접근법에 따른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수행체제'(KOICA, 2017) 등.



교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및 여성단체가 포함되어왔다. 금년 제 63차 CSW에는 한국 국제협력단(KOICA)에서도 최초로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맥락 안에서 CSW의 의의를 살피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CSW 본회의 및 side event 등을 통한 다양한 젠더 의제의 논의점들과 국제개발협력과의 연계, 특히 국가별 발표를 통해 도출한 SDG5 달성의 합의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개요

올해 유엔의 성평등 달성과 관련한 가장 큰 회의인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제63차 회의 (CSW63)’가 2019년 3월 11일부터 22 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다. 주요 의제는 “사회 보장 시스템, 성평등과 여성과 소녀들의 권한 부여를 위한 공공 서비스 및 지속 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다.

CSW 집행기구인 유엔위민(UN WOMEN)의 설명에 따르면 63차 의제의 의미는 여성과 소녀들은 시장이나 공원을 통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며, 깨끗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 보건 센터의 제공, 저렴한 보육원 사용을 포함하며, 가정 폭력의 생존자를 위한 노령 및 공공 주택의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유엔위민은 인프라, 공공 서비스 및 사회 보장이 부족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룹이 여성과 소녀들이라 말한다. 따라서, 정책 설계 시 이들의 필요를 고려해야 하고, 고려 방법으로는 이들의 목소리가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 여성이 정책 테이블에 앉아 결정을 내릴 때 사회와 국가 전체에 유익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성의 안전과 접근을 염두에 둔 공원 재설계에서 가사 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지지하는데 이르기까지 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재설계하려는 노력이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지역 수자원 관리에서 여성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보장하며, 필리핀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재정 계획과 저축 전략을 도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탄자니아의 시장 상인들은 젠더기반폭력에 반대한다.

안전한 사회(Social Security), 깨끗한 식수위생(WASH), 보건과 양육에 관한 지원(Health and Family support) 모두는 개별적으로도 개발협력사업의 주요 분야이면서 현재까지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자동적으로 반드시 여성과 소녀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앞서 유엔위민에서 설명한 ‘여성

정책결정자'의 수가 충분한지에서 시작하며, 소외된 여성과 소녀들이 '원하는 것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의 이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고려가 해당 공동체, 지역,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에 대한 증거와 선사례 도출을 통한 끊임없는 '성평등한 정책' 협상의 과정이다. 그렇다면 CSW에서 논의된 각 국가들의 이행노력이 어떠한지와, 이를 통한 국제개발 맥락에서의 향후과제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개회식 : 사회적 지위향상

먼저 개회식에 참석한 CSW 의장, UN 사무총장, UN WOMEN 총재 등의 발언을 통해 살펴본 CSW는 소위 권력(Power)지위위원회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이는 수 천년동안 여성이 체계적으로 무시·소외·침묵당한 현실 속에서 성평등은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ILO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여성은 남성보다 26% 적게 고용되었으며, 더 나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급 여성은 1/3보다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아직 성평등 달성의 미진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유엔은 동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고위급 관리직에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 비율을 달성하였으며, 가장 많은 여성 평화유지군 책임자를 배출했다고 발표하였다. 나아가 향후 유엔은 2021년까지 남녀 고위관리직 비율 동등을 계속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또한 2028년까지 전체 이사회 남녀 직원 비율 동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베이징 행동 강령 25주년, 여성평화안보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20주년 및 유엔 7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유엔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 자유 및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임을 피력하였다.

국제개발협력의 측면에서는 유엔의 이러한 결과 및 선언이 상당히 고무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협력대상국에서 여성 고위급 관리자 쿼터 지정 등 정책 변화를 포함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속한 개발협력기관 혹은 국가에서는 고위급 관리자 성별비율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성평등 달성 정도가 반드시 국가의 발전 수준에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지표에 따라 상이하나 한국의 GGGI 지표의 경우, 지표구성요소 중 '여성 정치참여율'이 현저히 낮아 총점이 1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여국 및 유엔을 포함한 개발협력기관에서의 성평등 달성 노력은 한층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회의에서 발표된

유엔의 노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며, 향후 유엔 최고 결정자 역시 여성이 임명되는 날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 일반 토의 : 국가분석

각국의 대표들이 금번 여성지위위원회의 성평등 의제를 어떻게 발전시켜왔고, 어떤 어려움이 존재하며, 향후 어떤 제약점들을 극복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발표와 공유는, 국가당 주어진 5분의 시간으로는 현저히 부족하며 피상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평등 의제의 발제를 위해 전 세계에서 유엔총회 다음으로 많은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이행과정을 공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첫째, 공여국의 입장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성평등 의제의 결과 도출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 성평등 달성의 최고 수준에 올랐다고 일컬어지는 북유럽 국가들 및 캐나다의 발제가 특히 그러하였다. 스웨덴은 성평등 달성은 사회적 정의의 달성으로, 성차별은 민주주의의 위협이며 여성의 권리를 주창하는 것은 향후 나아갈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발표하였다. 덴마크는 아직 활발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여성 생리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하였다(덴마크는 실제로 회의장에 탐폰과 생리컵을 발표좌석에 배치하였다). 캐나다는 성평등 달성은 올바른 일(right thing)이며 경제적으로도 현명한 일(smart thing)이라는 말과 함께, 17~18년도 공적원조(ODA)의 90%를 이미 성평등 달성 목표에 지출했고 금년에는 95%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지속발전가능목표 SDG의 달성까지 11년의 기간은 길지는 않지만 성평등 달성에 조력할 것임을 피력하였다.

둘째, 파트너 국가의 입장은 국가마다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성평등 이슈와 문제들을 국가 스스로 드러내고 공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금번 CSW에서는 의장기관인 유엔위민에서 특별히 각국에 자신들의 성과위주의 발표가 아닌, 문제점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공유해달라는 주문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인 말라위, 잠비아, 나미비아, 짐바브웨의 경우에는 모두 공통적인 이슈로 조혼과 젠더기반폭력 이슈를 공유하였으며,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 정책실행을 하려 해도 많은 경우 예산이 부족한 현실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각 개별국가마다 현장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한, 대부분이 국제기구 혹은 공여기관들의 정책·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성불평등의 현실과 성평등 의제달성의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이행의 노력이 한 장소에서 공유될 수 있었다는 점은 특히 CSW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발전 수준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유사한

성불평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 및 지역들을 범주화하는 등(예를 들어 기초교육과 성재 생산 문제가 시급함을 주로 피력하는 국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들과 어려움을 피력하는 국가, 식수위생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국가 등) 개발협력사업에서의 프로그램 단위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 자발적 토의 : 국가분석

여성지위위원회의 의제 중 ‘여성의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발전 간 연계’ 상호대화 세션은 규범적·법적·정책적 체계수립 강화, 성평등 달성과 여성의 역량강화(SDG5)를 위한 예산 지원 강화 및 환경 조성, 여성 리더십 보장과 동등한 참여, 성인지적 데이터 수집과 평가, 제도 발전에 대한 논의로, 개발협력과 높은 연계성이 있다. 자발적 발표는 발표를 원하는 국가가 미리 지원을 하여 준비하는 형식인데, 본고에서는 특히 공여국을 제외한 국가 중 필리핀의 사례를 소개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필리핀은 2040년까지의 국가 비전 및 중기 개발계획에 SDG를 통합해놓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17개의 SDG 목표가 이들 문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예산에도 반영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점을 지니며, 성평등 달성 측면에서는 젠더를 범분야 이슈로도 다루고 있어 문서의 모든 챕터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GAD(Gender and Development) 계획에 의거, 정부 사업뿐만이 아닌 공여국을 통한 개발사업에도 동일하게 최소 5%의 예산이 젠더관점 반영으로 지출되도록 정하고 있다.

필리핀의 마그나카르타 오브 위민(Magna Carta of Women)은 포괄적인 여성인권법으로, 이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의 국가변역본이며, 이에 따라 정책·예산·모니터링·평가에 성주류화를 이행하고 있다. 정부 고위급의 43%가 여성으로 주기적으로 여성 후보자 숫자를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필리핀의 글로벌 목표의 정책 적용발표를 통해 KOICA와 같은 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로, 사업 타당성 검토 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제적-국가적 수준의 정책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로, 국제조약과 목표를 기준으로 국가발전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정책이행을 위한 다양한 개발협력 파트너와의 협업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필리핀에서 소개한 조화로운 젠더와 개발 가이드라인(Harmonized Gender and Development Guidelines)은 2004년 컨설팅 회사인 PWC와 개발협력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 이행기관으로서의 KOICA와 CSW, 향후과제

한국의 무상원조 대표기관인 KOICA는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관의 미션으로는 SDGs의 철학과도 일치하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People) 중심의 평화(Peace)와 번영(Prosperity)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을 추구하며, 여기서 가장 먼저 강조되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소외된 여성과 소녀가 포함된다. 성평등 달성은 그 자체로도 독립적인 목표이지만 동시에 모든 SDG 목표를 아우르는 범분야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평등 의제를 논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일은 국제적으로도 필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이에 KOICA의 금번 여성지위위원회 참여는 조직의 미션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발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협력사업들을 성평등 관점에서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자리였다.

본고에서 짚막하게나마 정리한 회의의 내용과 합의점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결국 사업으로 귀결될 때 그 미션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필리핀의 사례처럼 국가에서 이미 SDGs 등 국제조약과 목표를 국가발전목표와 연계했을 때의 사업 방향과, SDG5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여성폭력과 차별, 악습 철폐의 경우 특히 어떤 국가들이 스스로 심각성을 느끼며 실태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차후 사업반영요소로 포함시키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정부관계자,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아이디어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side event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정보교류 역시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본 회의에서 2020년도 베이징 25+를 준비하는 세션 역시 활발한 논의와 함께 준비되고 있는 바, 계속적인 글로벌 의제에 대한 참여가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 참고문헌 •

<http://www.unwomen.org> CSW 사이트(접속일: 2019.06.09.)  
<https://koica.go.kr> KOICA 소개(접속일: 2019.06.09.)